“쌀 재고 대책 누락 유감” 쌀·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재촉구

숲지사 “2023년산 재고 매입·2024년산 40만t 시장격리를”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저능력우 등 장려금 지원도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과 관련, 쌀 재고량 대책이 누락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쌀값 최소 20만원대 유지·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다시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쌀·한우 수급 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t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유지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한우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쌀·한우 가격 상승보다는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쌀·한우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RPC 등이 저가로 방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2024년 신곡 쌀값 상승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RPC의 2024년산 신곡 매입 물량 축소, 매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또한 2024년산 신곡의 경우 10만t이 아닌 40만t 시장격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10-11월 통계청 생산량 발표 후에나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늑장 대처로 이미 쌀값이 떨어진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수확기 쌀값은 더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23년산 쌀 시장격리 및 재고 발생량, 2024년 벼 작황 호조, 감축 면적 1만ha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4년산 신곡도 최소 40만t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본격 수확기를 맞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산지 쌀값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RPC에 2023년산 쌀 재고가 남아있어 신곡 자체 매입 공간 부족과 2024년산 햅쌀용 조생종 벼 예상 수매 가격이 5만8천100원(40kg)으로 전년 매입가(6만7천400원)보다 9천300원 하락해 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김 지사는 또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 한우농가 사료 구매 자금을 현재 연이율 1.8%에서 무이자로, 상환 기간을 현재 2년거치 일시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줄것과, 노후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과 미경산우(새끼 낳지 않은 암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줄 것도 촉구했다.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우 거세우 가격이 현재 632만원까지 하락, 생산비보다 142만원이 낮아 한우농가가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한우 수급 조절, 사료 가격 기금 조성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없다면 한우 가격 정상 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1위인 쌀 주산지로 지금 중요한 현안은 쌀값과 한우 가격 정상화”라며 “정부의 선제 대책 마련으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농·축산 농가가 소득 감소와 생산비로 인한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서 두 번째로 높다

안도걸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에 기반 붕괴”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로 인해 광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광주의 폐업률이 11.8%로 전국 2위였다. 1위인 인천의 폐업률은 12.1%다.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명)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p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명이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소매업은 전년(2022년) 129만명 개인사업자 중 27만명이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명 중 15만명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등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대한민국 대표도시 광주 ‘화이팅’ 12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 내 광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원장, 시의원, 유관기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3부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광주미래를 그리다’, ‘광주미래를 담다’, ‘광주미래를 실현하다’란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김애리 기자

제13기 전남도민 명예기자 모집

지역 활동·향우 분야 총 150명…20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12일 “도정 주요 시책을 알리고 지역 소식과 도정 발전 아이디어를 수집, 전달하는 제13기 도민 명예기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3기 도민 명예기자에 위촉되면 오는 30일부터 2026년 9월29일까지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22개 시·군에서 활동할 지역 명예기자 119명, 서울·부산 등 타 지역에서 활동할 향우 명예기자 31명 등 총 150명이다.

지역 명예기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3세 미만 도민으로 글쓰기와 기사 작성 능력, SNS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5세 이하 청년층은 가산점 등 우대한다. 향우 명예기자는 시·도별 향우회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참가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이메일(ly3067@korea.kr)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재광 대변인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민주 공천장 수여

오늘부터 박지원 선대본부장 ‘24시간 선거캠프’ 가동

10·16 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장세일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수여받았다.

장세일 후보는 “군민 삶을 챙기고 영광의 미래를 위해 소임을 다하라는 군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과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후보는 “전국에서 4곳만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지만 전 국민의 시선이 영광으로 집중되는 선거”라며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 영광에서 야권의 표가 분산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결집해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 교체의 횃불을 들어올려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 측은 5선인 현역 박지원 국회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필승캠프’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3일부터 ‘24시간 선거캠프 체제’로 전환, 터미널·굴비골시장과 고속도로 영광요금소, 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20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

일시 2024년 9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강당

광주매일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는 9월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1부 김현수 교수의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열립니다.
2부에서는 학부모·교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광주매일TV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계자는 물론, 광주·전남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1부 - <강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
- 2부 - <토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른의 역할
- 토크 -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호동 경신여자중학교 교사
박윤희 광주동구중학교학부모회 대표
박소윤 영천중학교 학생(3학년)

※ 본 토론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 과 광주매일TV 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YouTube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매일TV

| 주최 |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주관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매일신문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